

투데이

광주 '클린디젤' 예산확보 비상

국비 479억 요청에 40억 배정...김재균 "기재부, 지역차별"

대구 '지능형자동차 개발사업'에는 100억

광주시에 '클린디젤핵심부품사업'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지역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까지 1871억원(국비 1283억원, 지방비 366억원, 민자 2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클린디젤핵심부품사업은 광주시의 특성화사업으로 오는 7월 사업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할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이 출범할 예정이다.

15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예산으로는 40억원(국비 30억원, 시비 10억원)을 지난해 확보, 사업 개시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년 예산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에 내년부터 연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젤기술전문센터 인프라 및 기술개발 5개 과제 예산으로 국비 479억원을 요청했으나 현재 배정된 예산은 40여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 사업이 광역특별회계에 해당 될 뿐 아니라 올해 배정된 첫 예산이 40억원이어서 갑작스런 증액이 어렵다고 밝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대구의 '지능형자동차 상용화연구기관 구축 및 기술 개발사업'과 달리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대구의 사업은 광주의 '클린디젤핵심부품사업'과 함께 자동차산업 국가경

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식경제부가 권역별 특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일반회계로 올해 100억원, 내년에도 100억원이 각각 배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는 "대구 지능형자동차 사업은 지난 2009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편성이 가능했을 뿐이지 지역적 정치적 배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입장은 구차한 변명만 불과 같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없애고 산업의 경쟁성과 클린디젤자동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소 100억원 이상의 국비는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해양경찰학교 청사 신축 기공식

여수 해양경찰학교 청사 기공

해양경찰학교 청사 기공식이 16일 여수시 오천동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영 전남도지사와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해양경찰학교장, 김충석 여수시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도 제공>

4대강 유지관리비 10배 증가... 지자체 재정부담도 늘듯

정부 연 2400억 투입...보·홍수조절지 관리는 수공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의 보·생태공원·자연경 길 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2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동안 광주·전남을 비롯해 지자체가 투입해 온 국가 하천의 유지·보수비가 연간 250억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가뜰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또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강 하천유지관리 방안을 확정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대강 공사가 끝나는 내년부터 영산강, 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1956km)을 포함 국가하천 61개소 2979km의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 2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투입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가 연간 250억원(국가보조금 50억원 포함)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

논란이 됐던 4대강 본류의 16개 다기능 보와 2개의 홍수조절지, 문화관 등의 관리는 수공이 책임진다.

지자체는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4대강 구간의 둔치·자연경로·생태공원·습지 등 친수시설 관리에 맡는다.

4대강 사업 이후 유지보수비는 상당수 국고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부

는 독·저수 등 시설물 관리와 수공의 보·홍수조절지 관리에 1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 또 나머지 1400억원의 지자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 및 4대강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되며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자체는 하천점유료와 골재 채취료, 둔치의 주차장·체육시설 임대 등 친수시설 수익사업 등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카스·까스명수·안티푸라민 슈퍼셔도 판매

44개 일반의약품 의약품 전환...하반기부터 시행

의약품 구매 불균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약사계, 소비자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박카스와 까스명수 등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을 의약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첫 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이들 품목이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 회를 열고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과 재분류 문제 논의에 들어갔다. 2000년 의약품법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소위원회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개편하거나 재분류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양분된 현재의 의약품 분류체계로 약국의 판매가 가능한 '자율판매'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이날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가운데 약사법 개정 없이도 동네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가 보고한 의약품 전환 품목은 까스명수 등 액상소화제, 미아리산 등 장기능 개선 정장제, 안티푸라민 등 위염제, 박카스 등 자양강장 드링크 등 4가지 종류 44개 품목이다.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만큼, 입법예고와 장관 고시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옮긴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 심사위원회 승인에 최소 한 달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올 하반기에는 이들 품목이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연필뉴스

광주시 의료코디네이터 양성 1억 지원

광주시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수인력인 의료코디네이터 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시는 15일 "광주지역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기관을 소개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늘어나는 외국인 환자 진료를 도울 수 있는 의료 코디네이터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

번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내 21개 종합병원을 포함해 1752개의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는 5.77명으로 전국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같은 예산규모는 경기도 13억5000만원, 대구 12억원, 부산 10억원, 대전 5억5000만원 등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해 높은 수준의 지역의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병원들은 올 초 외국인 환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의료관광협의회를 발족시키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d@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100억대 탈세 피소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피소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시행사인 C사 이모 대표는 지난 10월 정 회장 등 회사 임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소장에서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 640세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통째로 넘겨받아 매각하면서 신탁계약 형식으로 위장해 160억원의 취득·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는 등 모두 164억원의 세금을 탈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대산업개발이 울산 외에 인천과 광주, 전주, 군산 등 다른 지역 아이파크 건설 과정에도 이러한 사업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탈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공사비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로 매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며 "분양가를 할인한 것도 공사비에서 뺀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필뉴스

광주시 인권담당관에 이경률씨 선임

광주시 인권담당관에 이경률(50)씨가 선임됐다.

광주시는 15일, 민선5기 개방형직위로 새로 지정된 인권담당관에 이경률씨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의장과 광주환경연합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광주서구장애인

협회 상임이사로 재직하면서 광주 인권도시추진 위원회 위원과 인권도시 광주현장 제정 기초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뉴스 브리핑

1기분 자동차세 광주 407억·전남 560억 부과

광주와 전남도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7억원과 56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광주시는 15일,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9만5000건에 40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승용차가 30만7000건(379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도는 자동차 59만4000대

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560억원을 부과했다. 시·군별로 여수가 8만6000대 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8만6000대 87억원, 목포 7만대 73억원, 광양 5만3000대 53억원, 나주 3만3000대 29억원 등의 순이다. /윤현석기자 chadod@ /김지을기자 dok2000@

11월부터 쌀 포장지에 등급표시 의무화

오는 11월1일부터 쌀 포장지에 1~5등급으로 평가된 쌀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올해

11월부터 쌀 포장지에 쌀 등급을 표시토록 최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국제세 16조7천억 떼이거나 못 거둬

지난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결손 처리하거나 아직 거두지 못한 국제세가 16조7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세 수입 징수결정액 194조3999억원 가운데 불납결손액은 7조2211억원이며 미수납액은 9조4천606억원으로 집계됐다.

경매투자 OC & A Investment Institute. 공동투자자 및 자본주 중심,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장, 저상권등 특수물건만 투자, 50%미만 물건만 투자. H·P 011 605 5000 TEL. 062 525 5000

전남·북 출장파티 전문업체. 출장뷔페·도시락·식판급식·성당 교회결혼식뷔페·야외결혼식뷔페. www.party-food.co.kr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신한신용정보(주) 062)232-7770,010-4608-6061

남성 성기능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010-7770-8138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건 기금서비스, 개인신용관리 철저. 대출대상: 공무원, 교직원, 군무원. 대출금리: 1년 6% 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1544-9430

공무원 대출. 무방문·무담보·무보증·무조회기록. 대상: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금리: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1544-5248